



지식재산포럼은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포럼은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연구와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8월 발족한 민간단체로, 10월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지식재산의 보호와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심포지움에서 아라이 히사미쯔 일본 지식재산전략추진 사무국장은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역할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아래 강연을 진행하며, 일본의 지식재산입국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지식기술의 새로운 개념과 미래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지식재산권 활용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 산하에 지식재산 위원회를 설치해 총괄적으로 지식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식재산개혁, 민관일체로 속결 추진해야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지식재산권에 달려있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8월 민간의 지식재산국가전략포럼 발족부터 2002년 11월 지식재

사진설명: 9일 열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심포지움’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특허청장, 이상희·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경쟁력 지재권에 달려있다

8일 지식재산법 발의...지식재산입국 '시동'

산기본법 제정까지 불과 1년 3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스피드로 지식재산개혁이 진행됐고, 고이즈미 총리가 앞장서 지재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심포지움’에서 아라이 히사미쯔 일본 지식재산전략추진 사무국장은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라이 사무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식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국가전략포럼’이 2001년 8월 발족됐다. 이는 ‘21세기는 지식재산권이 열쇠를 쥐고 있는 지식 자본주의 시대’라는 인식하에 기업가,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저널리스트 등이 참여한 민간단체이다.

2002년 2월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시정 방침연설 중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는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한 뒤 총리 산하에 사적자문기관인 ‘지식재산전략회의’를 두고 전략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해 11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이 법에 의거해 2003년 3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각료 18명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출범해 지식재산 고등법원 설치를 올해 4월 이뤄냈다. 이 전략본부는 이외에도 산학협력 추진, 기업경영에서의 지식재산전략 강조, 특허심사 신속화법과 콘텐츠촉진법 제정, 모조품에 대한 대책, 지식재산에 강한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지식재산 인재육성 등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세

부과제들을 실천하고 있다.

아라이 사무국장은 “지식재산개혁은 정부 또는 민간 각자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일본은 민간단체인 ‘지식재산국가전략포럼’이 정부를 움직여 민관합동의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발족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의지로 현재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지식재산개혁을 위해서는 민관일체로, 특허권과 저작권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분석해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라이 사무국장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백년 후에도 같은 주장을 한다”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피드 중시로 추진하고, 국가의 제도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향한 3가지 추진방침으로 종래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것, 개혁의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공 과학정보신문
(www.scienceinfo.co.kr)



과학정보신문사 주최

제4회 전국 학생 과학창작대회 시상식 盛了

과기부총리상 · 특허청장상 등 총 8개 부문 280명 수상 영예

과 학정보신문사가 '21세기 과학 한국의 주인 이 될 청소년들에게 미래 과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소질 및 창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한 '제4회 전국 학생 과학창작대회'에서 공학조립 4명, 전자회로 4명 등 총 8명이 대상인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를 배출한 지도교사 8명에게도 대회 사상 처음으로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이외 수상으로는 최우수상(특허청장상) 8명(공학조립, 전자회로 각 4명), 금상 36명(공학조립 20명, 전자회로 16명), 은상 48명(공학조립, 전자회로 각 24명), 동상(공학조립 36명, 전자회로 40명), 장려상 104명(공학조립 · 전자회로 각 52명) 등 총 227명이 기쁨을 누렸다.

과학정보신문사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제4회 전국 학생 과학창작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임경배 한국학교발명협회장, 이승구 과학기술인공제회장, 이연중 전국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 김영수 한국모형항공기협회장, 강신구 한국과학언론인 회장, 서경학 전자부품연구원 부원장, 대회 수상자와 가족 등 500여명 참석, 성황을 이뤘다.

전국학생과학창작대회는 '한국청소년전자과학로봇교육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부, 특허청,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등이 후원했다.

제공 과학정보신문
(www.scienceinfo.co.kr)

발·특2005.11 |